

제 3강: 영국의 빈민법의 역사 2

※ 지난 주 강의 내용 복습

- 중세 봉건사회의 구빈(빈민대책)의 책임-교회와 수도원 그리고 장원의 주인인 영주들에 있었다.
- 빈민법은 중세 봉건사회가 쇠퇴하고 상공업의 부흥과 절대왕정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함. 언제?
답: 구빈법의 출현:16세기말 17세기 초

- (71면) 마녀재판? 시대 15-17세기.

답: 빈민을 마녀로 낙인찍어 처형. 왜? (답: 빈민 집단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과도기적 현상- 교회의 빈민에 대한 책임 불가능해 짐. 이 책임이 교회에서 국가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빈곤 대책의 책임소재 불분명) 국가의 책임의식; 정착되지 않은 상태. 빈민에 대한 저주를 통하여 책임 회피.

1. 소극적 국가개입의 시작

- 1) 초기빈민법 - 영국에서 빈민법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앞서 세계 최초로 발달하게 된 이유:(박광준 80면)

- 양모생산 위주의 토지이용 행태가 식량위기를 부름
- 로마교황청과의 결별이 빈곤대책을 책임지는 새로운 주체를 필요하게 만들.

(박광준 82면)

중상주의 국가들의 인구장려정책

인구유출 방지/ 독신을 억압함/조혼 장려/다산장려/ 사생아에 대한 처우 개선 등등.

- 2) 1601년 빈민법의 성립 배경과 내용

(1) 성립배경

- 엔클로저 운동의 확대에 따른 자영농 집단의 몰락 → 빈민집단의 규모 증대
- 수장령(헨리 8세)으로 인한 로마교황청과의 결별
- (박광준 89면) 수장령 부분 - 수도원의 폐쇄로 인하여 그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빈민들 해방시켜 부랑인으로 만들(약 88,000명)

(2)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이전의 빈민법

- 1572년 법(빈민과 생계무능력자들에 대한 처벌법)
- 1576년 법(빈민에 노동을 부과하고 나태를 피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법)

- (박광준 91면) **구빈재정은** 16세기 초반에는 왕의 하사금, 교회 앞에서의 모금 등을 합쳐 임시적인 성격의 예산으로 운영되었지만 1547년부터 런던을 필두로 빈민세(구빈세)를 걷기 시작하였고, 1572년에는 **빈민세 실시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음. 이에 따라 각 도시는 구빈 체제를 갖추기 시작--> 1601년 빈민법으로 인해 전국으로 확대됨.

(3)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년)과 이전 법과의 차이 : 이 법은 두 가지 방향으로 빈민대책의 재정 문제를 해결코자 함: 첫째는 교구단위 빈민세(구빈세)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함(빈민세제의 정착). 둘째, 자선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선의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실행기구 설치를 의무화하였다.(**자선의 의무화**) 자선의 의무화는 국가가 빈민집단에 대한 책임을 떠맡는 방향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조치라 해석할 수 있다.

① 이 법의 내용

- 교구 단위의 구빈행정 : 각 교구에 빈민 감독관(Overseer)을 둠. 빈민 감독관의 의무는 빈민에 대한 급여의 실시, 교구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일 등이었음. 빈민 행정의 총괄책임자로서 치안판사(Justice of Peace)를 둠. 치안판사는 지역의 유지이면서 국왕을 위해 봉사하는 무급공무원의 지위로서 항상 중앙권력의 통제를 받음.
- 빈민행정 재원조달 방법 주된 재원은 구빈세 (빈민세)였음. 빈민세는 교구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재산세와 같은 것이며 이 세제는 1601년 법으로 전국으로 확대 실시됨.
- 요컨대 이 법은 교구단위 빈민 구호원칙을 택하여 교구 안에서 빈민집단에 대한 행정과 재정이 해결되도록 함.

② 해설

-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이처럼 도시마다 독자적으로 실시하는데서 발생하는 빈민행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든 법으로, 빈민구제의 의무를 교구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1601년 빈민법은 구빈행정 체계의 완성판임.
- 그러나 이 법의 선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의도한대로 전국에 실시되지는 않음. (잉글랜드와 웨일즈지방에서 빈민세가 걸리지 않은 지역이 많은 것으로 기록에 나타남)

3)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후의 변화

(1) 1662년 거주지 제한법

- 이 법은 1601년 빈민법의 연장으로서 각 교구에 외부 빈민 유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102면)이 법은 “사람을 토지에 묶어 두려한 시대착오적인 입법”이었음.

(2) 1722년 나치블 법(일명 작업장 테스트 법)

- 이 법은 작업장을 전국에 확대시키고 모든 국가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모든 빈민들을 작업장에 입소시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 법은 빈민에 대한 편견(즉 빈민은 국가에 의존하여 살아가려는 의도를 지닌 사람)에 기초하고 있음. 작업장 생활수준을 최저수준으로 낮추고, 작업장 내의 규칙을 매우 엄하게 함으로써 입소를 포기하는 빈민의 수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빈민세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실시된 것임.

- 이법의 공포이후 작업장은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작업장 방식에 의한 빈민 관리 방식이 가장 경제적 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작업장의 열악한 조건이 개선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에 이르러서 임.(박광준 107면)

(3) 스피햄랜드 제도, 스피햄랜드 법(1796)(박광준 107면)

- 이 제도는 **역사상 처음 실시된 빈민집단의 기초생활보장 제도인 동시에 임금보조제도**임. 이 제도는 빈곤노동자 가구의 생활을 보호하는데 있어 부족한 임금을 지방세로 보충해주어 빈곤노동자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대신 거주지 내에서 정착하도록 하고 이주를 허용치 않는 정책을 씀.
이 제도는 농번기 때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지방 토호 계급(귀족세력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임.
이 법에서는 작업장 대신 빈민의 **거택구호 원칙**을 채택함.(이 법의 실시로 1722년 작업장 테스트 법이 폐지됨)
- 이 법의 장점: 빈민법의 인간화(내지 인도주의화), 원외구호의 시도
- 이 법은 좋은 의도와는 반대로 당시 영국 사회의 변화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으로 아담스미스 등 고전 경제학자들이 비판함.: 비판의 요지: 신흥 공업도시들이 대규모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에 반하여 많은 유향 노동력을 농촌에 묶어 둠으로서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점.
-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한 비판은 빈민행정 비용(구빈예산의 증대) 증가 문제(111면 표 5-1 빈민구제에 지출된 금액의 증가)에도 모아짐 → 이는 극도로 억압적인 성격의 신빈민법이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함.